

우리 문화유산 찾기운동에 도민의 동참을

변 평 섭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지역 정체성의 한 자락은 지역의 역사에 있다. 우리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곳이 과거의 역사이며, 실상 현재의 삶을 구축하고 있는 관행이라 함은 과거의 전통에 다름 아니다. 최근 ‘문화의 세기’라는 주장과 함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그 중요성은 배가되고 있다. 관광학계에서 주창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기반이 풍부해지기 마련이다. 현재를 있게 만든 근본이 역사이고, 미래를 개척하는 자원이 또한 역사인 셈이다.

2009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우리 문화유산 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뜻은 여기에 있다. 국내외에 산재한 충청남도 관련 유물을 수집정리하고, 연구와 전시를 통하여 충청남도에 숨겨진 역사적 사실을 재발견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연구원 산하에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의 고유사업 가운데 유물수집이 당연하게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전 도민이 공감하면서 동참하자는 뜻에서, 언론 홍보도 활용하는 운동으로 본격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 운동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09년의 경우에도 11월 현재 진주 류씨 종중에서 묘지석 129점, 계룡시 이전구 선생이 71점, 류근창 장군이 584점 등 총 584점을 기증받았다. 또한 공주시에서 공복루 현판 13점, 이재춘 선생의 전적류 201점, 최한

규 선생의 산신도(충남 유형문화재)와 계문서 등 19점, 충남의 최초 서원인 충현서원 소장 주자의 초상 9점 포함 13점, 남양홍씨 종중 홍가신 목사의 영정 1점 등 총 9,472점을 기탁받았다.

이 가운데 2009년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논산시 노성면 명재 고택 소장 유물 11,000여점을 영구기탁 받은 사실이다. 그 중에는 보물 제1495호 ‘윤증 초상 일괄’ 6점과 중요민속자료 제22호 ‘윤증가의 유품’ 58점, 그리고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제12호 ‘윤증가의 책판’ 1,039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윤증 초상의 경우, 1744년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이모본(移摹本)과 더불어, 윤증 초상을 제작한 연혁을 기록한 『영당기적』이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초상화의 역사적 변천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미 보물로 지정된 『영당기적』의 이본(異本),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명필 석봉 한호(1543~1605)의 간찰 등 다수의 문화재급 유물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재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초상 1점에 대한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보수작업을 완료한 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향후 국비 지원을 통한 문화재 보수작업이 계속될 수 있게 된 점도 큰 성과라 할 것이다. 명재고택의 기탁유물에 대해서는 2010년 종중과의 협의와 지원을 통하여 순차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10년 명재 윤증(尹拯) 선생의 부친 노서 윤선거(尹宣舉) 선생의 탄신 4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과 유물도록 발간, 그리고 학술대회를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원에서 지난 3월 말 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와 협약식을 맺은 것도 이 운동의 일환이다. 협의회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600여 회원 가운데 70% 이상이 전국 각지의 종가들이다. 따라서 향후 협의회를 통하여, 종가 소장유물들을 기증 또는 기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협의회와의 협력사업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종가의 소장유물도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고택 자체가 잠재력이 큰 역사자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0월 17일 본 연구원에서는 국악 피아니스트 임동창 선생을 초청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진행한 바가 있다. 2010년에는 음악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와 함께

고택 스테이 및 전통제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협의회 측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고택 자체를 기증할 의사를 밝힌 바가 있어서, 현재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충청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호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유교자원을 활용하는 문화관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유산 찾기 운동의 대상에는 일본과 중국 등 외국에 소재한 유물의 반환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8년 8월 해방 전까지 공주에 살다 일본에 거주한 아메미야 히로스케 선생의 소장유물 기증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일제강점기에 본 연구원 산하 역사박물관 인근에서 출생했던 선생은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공주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우리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선생이 최근 타계한 가운데, 그의 아들이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보기 위하여 방문한 바가 있다. 그 자리에서 귀국 후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를 약속하였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본과의 접촉은 요꼬하마의 공주회 또는 이시가와현의 무궁화회 등 과거 충남과 연고가 깊은 재외 단체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본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 찾기 운동은 각계 각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 도민 차원의 장기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된 유물은 정리작업을 거친 후 특별전과 도록 발간을 통하여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한 후 문화재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발굴의 역사적 사실들이 정리되면서, 충남의 문화 콘텐츠가 충실하게 구축될 것이며, 나아가서 문화산업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운동에 대하여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기대하는 바이다.